

2026 Summer

대입정보매거진

vol.137



고1칼럼

과목 선택,
정해져 있는 길을 갈 수도 있고
스스로 길을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1

고2칼럼

나에게 맞는 학과,
어떻게 선택할까요?

8

고3칼럼

2027학년도
수능의 방향을 읽다

12

대입뉴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발표

15

대입뉴스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
계획 발표

16

대입똑똑

대입상담교사가 쉽게 알려주는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사용법

17

대입코칭

엄마 마음으로 준비한
J형 선생님의 고3 여름방학

22

합격수기

건국대학교
지리학과
학생부종합(KU자기추천전형)

28

합격수기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부
학생부종합(일반전형)

35

부록

대교협 대입상담센터
전화·온라인상담 안내

44

* 본 지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 의견으로 한국대학교육협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기획 및 제작: 한국대학교육협회의 대입상담센터

고1칼럼

과목 선택, 정해져 있는 길을 갈 수도 있고 스스로 길을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모든 교과에 최선을 다하되,
자신의 진로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과 선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경기 저현고등학교 교사 윤미경

대학은 어떤 학생을 선발하고 싶을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대학에 와서 성공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학업적 기초 소양을 갖춘 학생을 원합니다.
따라서, 학과에 관련된 과목을 이수한 학생을 선호합니다.

서울대학교의 전공 연계 권장과목은 지원자격과는 무관하나, 모집단위가 권장하는 과목의 이수 여부는 수시모집 서류평가 및 정시모집 교과역량평가에 반영됩니다. 학생의 과목 이수 내용은 교과(군)별 과목의 위계를 고려하여 평가하며, 이수 여부뿐만 아니라 주도적인 학업 수행 내용과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출처: 2028학년도 서울대 전공연계 과목 선택 안내

‘우수한 학업 역량’은 대학 입학 후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적인 학업 역량을 의미하며, ‘전공적합성’은 지원하는 전공의 높은 지식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해당 전공이 어떤 특성의 학문을 공부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학생을 의미합니다. 즉, 우수한 학업 역량과 전공적합성에 대한 평가는 대학 수학에 필요한 과목을 제대로 배우고 온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출처: 동국대 학생부종합전형 가이드북



과목 선택이 왜 중요할까요?

1. 종합전형 같은 교과전형? 수시 같은 정시?

2028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는 학생부교과전형과 수능위주 전형에서도 서류 평가를 반영하는 대학이 많아졌습니다.

2028학년도 대학 입학 수시모집 학생부교과전형

서류 평가 반영 대학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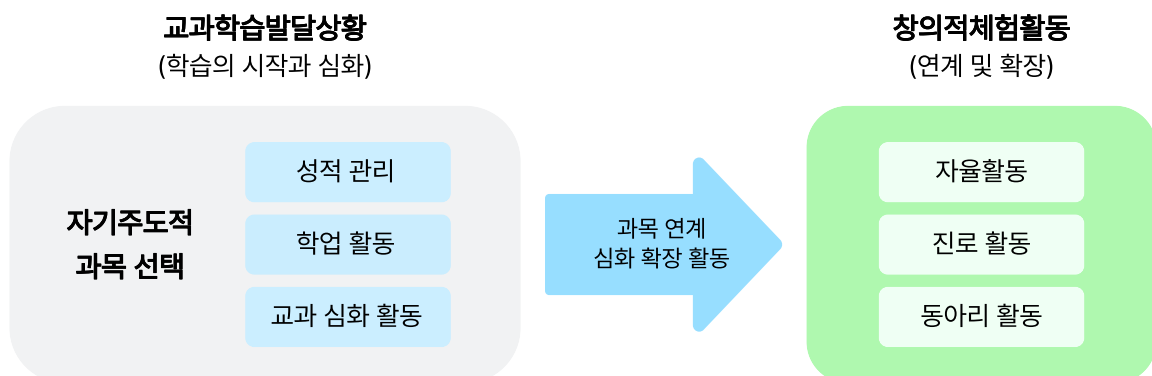
수시모집 학생부교과전형			정시모집 수능위주 전형		
대학	전형명	서류평가 비율	대학	전형명	서류평가 비율
건국대	KU지역균형	30%	건국대	KU일반 다군	10%
경희대	지역균형	30%	동국대	일반	20%
고려대	학교추천	20%	서울대	일반	40%(2단계)
동국대	학교장추천인재	30%	숙명여대	일반 가군	20%
서울시립대	지역균형	40%	연세대	유형 I, II	10%
성균관대	추천인재	30%	이화여대	수능-학생부	15%
숙명여대	지역균형	30%	중앙대	수능67	33%
연세대	추천형	20%(2단계)	한양대	일반	10%
이화여대	고교추천	15%			
한양대	추천형	40%			

*출처: 2028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 (후수 수시, 정시모집요강에서 확인)

위의 대학들에서의 서류 평가는 교과학습발달상황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어떤 과목을 왜 선택하고 어떻게 공부했는지가 앞으로의 대학 입시에서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에 맞는 과목을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이 입시 준비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에 미치는 영향력

과목 선택이 모든 활동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과목선택은 교과성적으로 연결되고, 학업 수행 활동, 과목의 개념을 심화하는 활동으로 이어지므로 교과학습발달상황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또한, 창의적체험활동에서는 과목과 연계한 심화 활동 혹은 확장하는 활동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과목을 선택한다는 것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여러 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고1 과목 선택, 종합전형 같은 '진짜 나'를 만나는 첫 번째 갈림길

1. 자기 이해: 나의 적성과 현재 위치 파악하기

자신이 어떤 분야에 소양과 학업적 역량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검사 도구 활용:** 직업적성검사, 직업흥미검사, 전공계열검사 등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계열과 학과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과목별 성적 분석:** 1학년 1차, 2차 정기고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학, 과학, 사회 중 자신이 더 잘하고 강점을 보이는 과목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합니다.
- **선배 멘토링:** 인문, 사회, 자연, 공학, 의약학, 예체능 등 다양한 계열에 진학한 선배들과의 멘토링을 통해 계열별 특징을 탐색하고, 나만의 2~3학년 과목 선택 로드맵을 그려봅니다.

2. 직업 이해: 커리어넷 100% 활용하기

미래에 가질 직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커리어넷(www.career.go.kr)의 '직업백과'를 활용해 보세요. 관심 있는 직업군을 검색하면 그 일을 하기 위해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해야 하는지, 필요한 핵심 능력과 적성, 향후 직업 전망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학과 이해: 대학 교육과정(커리큘럼) 들여다보기

관심 있는 학과를 정했다면, 해당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 '4년간 무엇을 배우는지' 교육과정을 반드시 살펴보세요. 대학 수업을 이해하기 위해 고등학교 때 어떤 과목을 먼저 공부해야 하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례 1] 경희대학교 약학과 교육과정 일부

약학생물학, 약학일반화학, 유기약화학,
해부생리학, 물리약학, 의약통계및빅데이터 등

의약품 합성과 질병 치료를 깊이 다루므로 화학과 생명과학은 필수입니다. 약의 제형(알약, 가루약 등)이나 체내 이동 원리를 배우기 위해 물리학이 필요하며, 임상 데이터 분석과 약물 농도 계산을 위해 미적분이나 확률과 통계 역량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사례 2] 건국대학교 사회환경공학부 교육과정 일부

건설재료학, 수리학, 재료역학, 유체역학,
토질역학, 환경화학, 공간정보공학, 수문학 등

수문학이나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수학 역량이 요구되므로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를 두루 이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학 분야인 만큼 물리학(역학과 에너지, 물질과 에너지), 지구과학(지구시스템과학)을 이수하면 대학 학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

4. 과목 이해: 교과서 미리 보고 현실적인 고민하기

단순히 과목 이름만 보고 선택했다가는 막상 2학년이 되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교과서 훑어보기:** 2학년 교과서를 미리 펼쳐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수행평가나 탐구활동 주제는 무엇인지, 대단원 마무리에 어떤 주요 개념이 나오는지 미리 살펴 보면서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지 확인해 봅니다.
- **흥미와 적성:** 2학년 선택과목의 수강인원은 1학년때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만큼 좋은 성적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적과 관계없이 흥미를 잃지 않고 끝까지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인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5. 연계 독서: 배경지식 쌓기

선택할 과목을 결정했다면, 틈날 때마다 해당 과목과 연계된 도서를 읽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학년 과목들은 1학년 과목보다 개념이 한층 어려워지기 때문에 독서를 통해 배경지식을 미리 익혀두면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과목별 도서 예시]

- 수학 - 세계를 바꾼 17가지 방정식, 미적분의 쓸모, 수학 언어로 문화과학 읽기
- 물리 -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물리이야기, 물리가 물렁물렁
- 화학 - 사라진 스펀, 원소의 세계, 역사를 바꾼 17가지 화학 이야기
- 생명과학 - 세포: 생명의 조각들,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 섭씨 36.5도의 비밀
- 지구과학 - 지구의 속살, 기후변화의 심리학, 지구과학 산책
- 국어 - 우리말 문장 부호의 모든 것, 문해력이 자라는 아이들, 문학의 숲을 거닐다
- 역사 - 식탁 위의 세계사, 역사의 쓸모, 처음 읽는 동아시아사

* 위의 도서들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을 골라 등하교길이나 쉬는 시간에 가볍게 읽는 습관부터 시작해 보세요.

원하는 학과 가려면 이 과목부터!

대학별 반영 및 권장과목

대입정보포털 '어디가(adiga.kr)'에는 50개 대학이 발표한 권장과목 자료집이 있습니다. 학과별 권장과목이 궁금하면 이 자료집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인문계열과 자율·자유전공학부는 학생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권장과목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송실대에서는 인문계열 학과에 대해서도 학과와 관련성이 있는 과목을 폭넓게 정리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목 선택이 어려운 학생이라면,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예시] 2028학년도 송실대학교 입학전형 시행계획 - 선택과목 가이드

학과	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
철학과, 사학과, 기독교학과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대수, 영어, 영어II, 영어독해와 작문, 세계시민과 지리, 세계사, 사회와 문화, 현대사회와 윤리,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한문	주제탐구독서, 한국지리탐구, 동아시아역사기행, 윤리와 사상, 삶과종교, 인문학과윤리, 한문고전읽기, 논리와 사고, 인간과 철학, 인간과 심리	독서토론과 글쓰기,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세계, 사회문제탐구, 윤리문제탐구, 논술, 언어생활과 한자
경제학과, 글로벌통상학과, 경영학부, 회계학과, 벤처중소기업학과, 금융학부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대수, 미적분I, 확률과 통계, 영어, 영어II, 영어독해와 작문, 세계시민과 지리, 세계사, 사회와문화, 정보, 진로와 직업	직무의사소통, 기하, 미적분II, 경제수학, 인공지능수학, 직무수학, 영어발표와 토론, 심화영어, 심화영어독해와 작문, 직무영어, 정치, 법과사회, 경제, 국제관계의 이해, 인공지능기초, 데이터과학, 논리와 사고, 인간과 심리	실용통계, 수학과제탐구, 실생활영어회화, 미디어영어, 세계문화와 영어, 사회문제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지식재산일반, 인간과 경제활동, 논술

반면에 자연계열에는 학문의 단계적 학습 위계를 고려하여 기초 과목 중심의 권장과목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시] 2028 경희대학교 자연계열 전공 학문 분야별 고등학교 교과이수 권장과목 안내

학문분야	핵심과목		권장과목
기계공학부	대수, 미적분I, 확률과 통계, 미적분II, 기하	물리학, 화학,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미래정보디스플레이학부, 생체의공학과, 전자공학과, 반도체공학과	대수, 미적분I, 확률과 통계, 미적분II, 기하	물리학, 화학,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
화학과, 응용화학과	대수, 미적분I, 확률과 통계, 미적분II	화학,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물리학, 생명과학, [역학과 에너지 또는 전자기와 양자]

* 핵심과목 이수 : 중요하게 긍정 평가 / 권장과목 이수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긍정 평가

대학이 제시한 권장과목을 이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불합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당 학과를 진학하려는 의지와 학업 역량을 보여주는 가장 쉬운 방법이 '과목 선택'인 만큼, 권장과목은 되도록 이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례로 보는 이수 과목에 대한 대학의 평가

< 동국대 화공생물공학과 - 충실히 이수한 사례 >

교과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수학	수학I, 확률과통계	수학II, 확률과통계	미적분, 기하	미적분, 기하
과학	물리학I, 화학I, 생명과학I	물리학II, 화학II, 생명과학II 물리학실험	물리학III, 화학III, 융합과학	물리학III, 화학III, 융합과학

화공생물공학과는 공학적 원리를 다루는 학과입니다. 따라서, 수학, 물리학, 화학 역량이 필수적입니다. 위의 사례는 화학II, 물리학II까지 모두 이수하였으므로, 공학적 기초 소양을 충실히 갖추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동국대 의료인공지능공학과 - 아쉬운 사례 >

교과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수학	수학I, 수학II	미적분, 수학과제탐구	심화수학I
과학	화학I, 생명과학I, 지구과학I	화학II, 생명과학II, 지구과학II	생명과학III, 지구과학III
교육과정편제표에 있으나 미이수	물리학I	확률과통계, 경제수학 물리학II	기하, 인공지능수학 물리학III, 화학II

의료인공지능공학과는 공학적 기초 역량이 중요한 학과입니다. 따라서, 생명과학 역량도 필요하지만, 데이터 분석과 알고리즘 설계를 위한 수학 및 물리학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의 사례의 경우, 확률과통계, 기하나 인공지능 수학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이수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기초역량을 쌓기보다는 심화수학이라는 심화과목에 초점을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 서류 평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물리학과 화학II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물리학과 화학II를 이수하지 않은 점도 학과의 특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이수 상황이어서 아쉬운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목 선택으로 나만의 서사를 보여 줄 수 있어요.

과목 선택을 통해 고교생활 전반에 걸친 자신만의 맥락과 서사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건축학부를 희망하는 학생이 수학과 물리를 선택하면서, 건축사에 대한 관심으로 역사 관련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유산학과를 준비하는 학생이 화학을 선택해서 문화유산 복원에 관한 지식을 쌓는 모습을 보여주고, 한문을 선택함으로써 고문서 이해에 대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과학교육과를 희망하는 학생이 사회와 문화 과목을 선택해서 다양한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교육에 대한 관심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과목 선택, 진로 적합성이라는 말에 자신을 가두지 말기

저는 2학년에 물리학 I, II 과목을 이수했습니다. <물리학1>은 신청자 수가 현저히 적은 과목이었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을까 초조하기도 했지만, 물리에 대한 호기심을 채워나가는 과정을 거치며 <물리학 2>까지 성공적으로 이수할 수 있었습니다. (종락) 만약 <물리학 I>을 수강하지 않았더라면 구강 내의 교정력과 마찰력에 대해 탐구하지 못했을 것이고, <기하>를 수강하지 않았더라면 치열의 포물선 모양과 관련된 주제탐구활동을 진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을 잘 받기 어렵더라도 흥미가 있는 과목에 도전해 보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러한 도전 속에서 여러분이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후략)

*출처: 2027 서울대학생부종합전형 안내

과목에서 배운 내용을 교과시간을 통해 심화하는 활동을 하면서, 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확장해 나가면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진로를 아직 못 정했어도, 여러 진로에 관심 있어도 괜찮아! : '전공자율선택제'

진로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이 많습니다. 혹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공자율선택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대학 1학년이라는 시간 동안 천천히 진로를 탐색한 후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신 안의 다양한 가능성을 찾아보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전공 선택에 관한 규정에 대학마다 차이가 있으니 관심 대학 입학처의 모집요강을 꼭 확인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 하고 싶은 것이 뭔지 찾지 못해 고민이에요

'내가 가장 선호하는 과목' 찾기로 시작해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과목을 중심으로 깊이 있게 파고드는 활동(독서, 발표, 탐구 보고서 등)을 수행합니다. 관심 과목에 몰두해서 나만의 주도적인 학교생활을 보여준다면, 학교 생활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 전공자율선택제 입시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고민이에요

인문학도 좋은데 컴퓨터공학에도 흥미가 있거나, 경영학과 미디어학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고 싶은 게 많다는 장점을 살려 '학문 간의 연결(융합)'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프로젝트형/사회문제 해결형 동아리 활동을 함으로써 팀원들의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고 종합하는 '조율자'의 역량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원하는 과목이 없다면? : 공동교육과정

학교 여건상 개설되지 못한 과목이 있다면 창의적 체험활동, 공동교육과정, 독서 등을 통해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서류와 면접에서 입학사정관에게 매우 긍정적인 인상을 남깁니다.

부담 없는 공동교육과정 적극 활용하기

공동교육과정의 평가는 상대평가(등급)가 아니라 성취도로 평가됩니다. 내신 성적에 대한 부담 없이, 내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과목을 추가로 이수할 기회입니다.

주의! '이수' 자체가 합격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단순히 "이 과목 들었어요"라는 사실만으로는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해당 과목을 배우며 자신의 역량을 어떻게 펼쳤는지, 그리고 어떤 학업적 성취를 거두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줄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과목 선택이 막막할 땐? : [함께학교] 무료 진로·학업 컨설팅 신청하세요!

과목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안내해 드립니다.

- **신청 방법** : [함께학교] - [스터디카페] - [진로·학업 설계] 탭에서, <컨설팅 신청>을 클릭
- **신청 링크** : <https://www.togetherschool.go.kr/consulting/consultingReqMain>
- **신청 대상** : 중3 ~ 고등학생까지(학생 회원만 가능함)
- **컨설팅 내용** : 4개 영역(학업교과, 학습전략, 진학전략, 진로상담)
- **컨설팅 진행 절차**
 - ① [컨설팅 요청] 진로·학업 설계 관련 고민, 컨설팅에 필요한 정보, 컨설팅 요청 분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② [지원단 배정] 학생의 해당 시도 지원단(팀)에 신청한 컨설팅 내용이 배정
 - ③ [검토 및 작성] 지원단(팀) 선생님이 함께 학생의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컨설팅 내용을 작성
 - ④ [답변 전달] 컨설팅 내용을 학생에게 전송, 필요시 추가 컨설팅 신청

훗날의 내가 오늘의 나에게 고마워할 '과목 선택'의 힘

이수하고 싶은 과목이 있는데, 수강 신청 인원이 적어서 고민이 된다면, 경희대, 세종대, 덕성여대에 대해 알아보면 좋습니다. 이 대학들의 학생부교과전형에서는 등급과 성취도 중 우수한 성적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절대평가인 원점수,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면 또 다른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과목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이 스스로 과목을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점차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그리고 왜 이 학과를 선택하게 되었는지를 학교생활 전반을 통해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과목 선택은 단순히 문과와 이과 중 하나를 고르는 이분법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세상을 더 깊게 들여다볼지 스스로 결정하는 '즐거운 권리 행사'입니다. 신중하게 과목을 선택했다면, 그다음엔 이 선택이 훗날 자신에게 고마운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2칼럼

나에게 맞는 학과, 어떻게 선택할까요?

충남 홍성고등학교 교사 박성환

“어떤 대학 갈까?”보다 “무엇을 배우고 싶은가?”

“대학만 잘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성적에 맞춰서 가고, 진로는 나중에 정하면 되지 않을까?”

“솔직히 아직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대입을 준비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하게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입시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어느 대학에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물론 대학의 교육 여건, 위치, 장학제도, 진로 지원 프로그램은 중요한 선택 기준입니다. 하지만 대학 이름만큼이나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대학에서 실제로 배우게 될 학과와 전공입니다. 학과 선택은 내가 무엇을 배우고, 어떤 방향으로 성장할지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왜 학과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할까요?

대학에 입학한 뒤에도 전공 때문에 고민하는 학생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학의 인지도나 합격 가능성만 보고 학과를 결정하면, 대학 생활 중 “이 길이 나와 잘 맞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전공은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뿐 아니라 이후 진로와 성장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관심이 높아진 전공자율선택 모집단위도 전공 탐색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공을 나중에 정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대학에 들어간 뒤 자신에게 맞는 전공을 선택하려면 미리 관심 분야를 생각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4 고등교육 현안분석 자료집’에서도 전공자율선택제 운영에서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중도탈락 예방이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공자율선택 모집단위로 지원하더라도 고등학교 때부터 어떤 과목에 관심이 있었는지, 어떤 탐구 경험을 쌓아 왔는지 돌아보며 자신에게 맞는 학과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국 학과 선택은 단순한 입시 전략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배우고 어떤 방향으로 성장할지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학과 이름만 보고 선택해도 괜찮을까요?

학과 이름만 보고 선택하면 실제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과 다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계열이나 비슷한 분야의 학과라도 대학마다 교육과정이 다르고, 학과마다 중점을 두는 공부나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공학, 인공지능, 데이터사이언스 관련 학과는 모두 디지털 기술과 연결되어 있지만 실제 전공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컴퓨터공학은 컴퓨터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원리를 폭넓게 배우는 경우가 많고, 인공지능 관련 학과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주로 다룹니다. 데이터사이언스 관련 학과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둡니다.

따라서 관심 있는 학과가 생겼다면 학과 이름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먼저 실제로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서는 관심 학과의 교육목표, 교육과정, 진로·취업 분야 등 기본적인 학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학과정보>

< 대학/학과/전형 > 학과정보 > 일반대학

학과정보

일반대학

전문대학

2027학년도(현재 고3)

대학명을 입력해주세요.

학과

학과관련 키워드

컴퓨터(전체) ×

총 127건

학과명	대학명	지역	2026 경쟁률	입학정원	2026 입시결과	비교
컴퓨터 · 시학부(인문)	동국대학교 [본교]	서울	수시 67.75 정시 6.86	11	입시결과	✓ 비교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한양대학교 [본교]	서울	수시 35.73 정시 4.61	130	입시결과	✓ 비교
컴퓨터공학과의	서강대학교 [본교]	서울	수시 27.63 정시 5.39	90	입시결과	✓ 비교

또한 대학 홈페이지에서는 학과 소개, 교육과정표, 전공 교과목, 졸업 후 진로 등을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1학년 때 어떤 기초 과목을 배우는지, 학년이 올라가면서 어떤 전공 과목을 배우는지 확인하면 그 학과가 나와 잘 맞는 지 더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학과 선택, 과목 선택과 연결됩니다

관심 있는 학과가 있다면 그 학과와 관련 있는 고등학교 과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어떤 과목을 공부하면서 흥미를 느꼈다면, 그 과목과 연결되는 학과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학과 선택과 과목 선택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 분야와 전공 준비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처음 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수능이 선택과목 없는 통합형 체제로 운영되면서, 대학은 전형에 따라 학생이 고등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어떤 학습 경험을 쌓았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학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은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져왔을까?”

“대학에서 전공 공부를 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선택 과목과 진로 탐색이 연결되어 있을까?”

즉, 고등학교 시기부터 진로와 연결된 과목 선택과 학습 경험이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선택 과목을 단순히 내신 성적 관리나 유불리의 문제로만 보기보다, 나의 관심 분야를 확인하고 대학 전공 공부를 준비해 보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과 선택 전, 다섯 가지를 점검해 보세요

학과를 선택할 때는 “유망한 학과인가?”만 볼 것이 아니라 “나와 잘 맞는 학과인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심 학과가 생겼다면 다음 항목을 직접 점검해 보세요.

확인	점검 항목	확인해 볼 내용
☐	적성	내가 비교적 잘 이해하는 과목이나 자신감을 느끼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	흥미	관련 수업, 독서, 탐구 활동을 할 때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드나요?
☐	진로	이 학과를 졸업한 뒤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연결되나요?
☐	선택 과목	고등학교에서 선택한 과목이 관심 학과나 전공 준비와 연결되나요?
☐	교육환경	교육과정, 전공 교과목, 교수진, 실습·프로젝트, 진로 지원 프로그램을 확인했나요?

학과 정보를 확인할 때는 대학 홈페이지의 학과 소개와 교육과정표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서는 대학·학과·전형 정보를, 커리어넷에서는 학과정보와 직업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담임 선생님이나 진로진학상담 선생님과 상담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학과 선택, 완벽한 진로가 아니라 '방향'을 찾는 과정

아직 진로가 명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고등학생 시기는 정답을 확정하는 시기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방향을 탐색하는 시기에 가깝습니다. 다만 성적에 맞춰 대학과 학과를 정하기보다, 나의 적성·흥미·미래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학 이름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결국 내가 배우는 전공과 앞으로 살아갈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대학에 갈까?”보다 “나는 무엇을 배우며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를 함께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이 학과 선택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학과 선택은 입시의 끝이 아니라 대학 생활과 진로 설계의 시작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정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수업 속에서 흥미를 느낀 내용을 더 살펴보고, 관심 있는 과목과 학과를 하나씩 탐색하다 보면 나에게 맞는 방향이 조금씩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관심에서 출발해도 충분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차근차근 찾아가길 바랍니다.



고3칼럼

2027학년도 수능의 방향을 읽다

6월 모의평가 출제 경향 분석과 수능 대비 학습 전략

서울 세그루패션디자인고 교사 김완수

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가 의미하는 것

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는 단순한 전국 단위 모의고사가 아니다. 실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직접 출제한 시험이라는 점에서 올해 수능의 출제 방향과 난이도 조정 의도를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이다. 특히 올해 6월 모의평가는 국어, 수학, 영어의 난이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최근 입시 환경 변화와 맞물려 수험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이번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국어의 쉬운 출제와 수학·영어의 높은 변별력이다.

국어 '언어와매체'의 최고 표준점수는 134점, '화법과작문'은 133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6학년도 수능의 '언어와매체' 최고 표준점수 147점, '화법과작문' 142점과 비교하면 크게 낮아진 수치이다. 또한 국어 1등급 원점수는 '화법과작문' 96점, '언어와매체' 95점으로 형성되었다. 사실상 두 문제만 틀려도 2등급으로 내려갈 수 있는 구조였다. 이는 평가원이 국어 영역에서 강한 변별력을 의도적으로 줄였음을 의미한다.

반면 수학은 국어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미적분' 최고 표준점수는 140점, '기하'는 139점, '확률과통계'는 137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적분' 1등급 원점수는 87점으로 국어보다 훨씬 낮게 형성되었다. 이는 상위권 학생들의 점수 분포가 국어보다 수학에서 크게 벌어졌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올해 6월 모의평가의 최상위권 변별력은 수학이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영어 역시 매우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었다. 절대평가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1등급 비율은 약 3.5%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지난해 수능의 영어 1등급 비율 3.1%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영어가 더 이상 '절대평가이므로 쉬운 과목'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본 내용은 실채점 결과 발표 전에 작성되었으므로, 열람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역별 출제 경향 분석

1. 국어: 쉬운 시험이 아니라 위험한 시험

많은 학생들이 이번 국어 시험을 ‘물국어’라고 평가하였다. 실제로 ‘언어와매체’ 1등급 원점수는 95점, ‘화법과작문’은 96점이었다. 지난해 수능에서 ‘언어와매체’ 1등급이 85점, ‘화법과작문’이 89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6~10점이나 높아졌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히 좋은 신호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 최근 평가원의 출제 패턴을 살펴보면 6월 모의평가에서 변별력이 부족했던 경우 수능에서 난이도를 크게 높이는 경향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최고 표준점수는 137점이었으나 실제 수능에서는 147점까지 상승하였다. 무려 10점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6월 모의평가의 최고 표준점수는 134점으로 지난해보다도 더 낮다. 이는 평가원이 수능에서 독서 지문의 난도를 높이거나 문학 영역의 사고력을 강화하여 변별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2. 수학: 올해도 수능 승부처는 수학이다

수학은 올해 수능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적분’ 최고 표준점수는 140점으로 국어보다 6점 높았다. ‘기하’ 역시 139점을 기록하였다. 이는 수학이 상위권 변별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이다. 특히 최근 평가원의 특징은 킬러문항을 없애는 대신 준킬러 문항을 늘리는 것이다. 과거에는 29번과 30번 두 문제를 통해 상위권을 가려냈다면 최근에는 11번부터 15번, 그리고 20번부터 22번까지의 문항들에서 지속적으로 사고력과 계산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학생들은 특정 문제를 포기하는 전략보다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수학에서 점수가 하락하는 가장 큰 원인은 어려운 문제를 못 푸는 것이 아니라 계산 실수와 시간 부족이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3. 영어: 절대평가의 탈을 쓴 상대평가

영어는 올해 가장 주목해야 할 과목 중 하나이다.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서는 영어 1등급 비율이 무려 19.1%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이후 평가원은 난이도를 크게 조정하였다.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서는 4.5%, 실제 수능에서는 3.1%, 그리고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도 3.5%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는 평가원이 영어 1등급 비율을 의도적으로 3~4%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위권 대학 대부분이 수능최저학력기준에 영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영어 1등급 확보 여부는 수시 합격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

※ 본 내용은 실채점 결과 발표 전에 작성되었으므로, 열람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7학년도 수능 전망

이번 6월 모의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올해 수능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 첫째, 국어는 6월보다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 둘째, 수학은 현재 수준 이상의 변별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 셋째, 영어는 현재의 어려운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 넷째, 탐구는 자료 분석형 문항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 다섯째, N수생 증가에 따라 상위권 경쟁은 지난해보다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

수능 필승 학습 전략

국어

국어는 지금부터 “불수능 대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매일 비문학 지문 3개 이상을 읽고 핵심 내용을 구조화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특히 ‘경제, 과학, 철학’ 지문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야 한다. 문학은 EBS 연계 작품을 완벽히 정리하여 시험장에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수학

수학은 올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과목이다. 2주에 한 번은 실전 모의고사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11~15번, 20~22번 구간 문제를 집중적으로 훈련해야 한다. 오답노트보다 실수노트를 작성하여 반복되는 실수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어

영어는 매일 학습이 필수이다. 하루 30분 이상의 어휘 학습과 EBS 연계 교재를 풀면서 감각을 익혀야 한다. 듣기평가 문제는 다 맞추고, 점수를 주는 쉬운 유형을 틀리지 않도록 연습해야 한다. 문맥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단순히 의미를 유추해서 풀면 고득점은 어렵다. 정확한 독해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탐구

탐구는 새로운 문제집보다 개념 반복이 중요하다. 사회탐구는 자료 해석 훈련을 강화해야 하며, 과학탐구는 그래프 분석과 실험 해석 능력을 길러야 한다. 특히 자연계 학생들은 단순히 사탐런을 따라가기보다 지원 대학의 반영 방식을 먼저 확인한 후 선택 전략을 결정해야 한다.

남은 기간의 핵심은 단순한 문제 풀이가 아니라 국어는 독해력, 수학은 준킬러 해결력, 영어는 꾸준한 1등급 유지력, 탐구는 개념 적용력을 기르는 데 있다. 이러한 준비가 이루어진 학생이 11월 수능에서 가장 강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 본 내용은 실채점 결과 발표 전에 작성되었으므로, 열람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입뉴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6-03-31
------	-----------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발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김문희)은 2026. 11. 19.(목)에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① 공교육 내 적정 난이도 출제 및 EBS 연계율 50퍼센트 수준 유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학생들이 공교육 범위 내에서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전 영역/과목을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교육부의 '수능 출제 체계 개선안'을 충실히 적용하여, 안정적인 출제 난이도를 유지하며,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 <수능특강> 및 <수능완성>

② 수험생 적응을 위한 모의평가 운영과 필수 한국사 출제 기조

수능이 안정적으로 출제, 시행될 수 있도록 두 차례 모의평가(6월, 9월)를 실시하여 수험생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추어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출제할 계획이다.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일	6. 4.(목)	9. 2.(수)	11. 29.(목)
성적 통지일	7. 1.(수)	9. 29.(화)	12. 11.(금)

③ 공통 선택과목 구조 및 절대평가 유지와 수능 안내자료 제공

2022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시험 체제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올해에도 작년과 같이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지며, 한국사/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하여 별도 제공한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2027학년도 수능 안내자료(3종)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다.

* <https://www.suneung.re.kr/sub/info.do?m=0401&s=suneung>

④ 시각장애 수험생 시험 편의 제공 및 저소득층 응시수수료 완화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을 제공하고, 이에 더하여 2교시 수학 영역 및 4교시 탐구 영역에서 필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응시수수료 환불 제도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응시수수료 환불 및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의 구체적인 실시 방안과 절차 등은 2026. 7. 6.(월) 시행세부계획 공고 시 발표할 예정이다.

대입뉴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6-04-30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정 한양대학교 총장, 이하 대교협)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제4항에 근거하여 전국 194개 회원대학이 제출한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취합하여 공표하였다.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각 대학이 대학교육의 본질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고려하고 학교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 대입전형 간소화 및 공정성 확보 등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상의 수립 원칙을 충실히 준수 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수립된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올해는 「2028 대입개편안」이 적용되는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 선발기조에는 전년대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전체 모집인원 및 수시 모집인원 증가, 정시 모집인원 감소

전체 모집인원은 2027학년도보다 3,072명 증가한 348,789명이며, 수시 및 정시 모집인원은 전년도 대비 소폭 변동 되었다. 전체 모집인원 348,789명 중 수시모집은 281,895명(80.8%, 전년 대비 0.5%p 증가), 정시모집은 66,894 명(19.2%, 전년 대비 0.5%p 감소)로 전년도에 이어 수시모집의 비중이 소폭 증가하였다.

②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정시모집 수능위주 선발 기조 유지

수시모집에서는 86.0%를 학생부위주(교과·종합) 전형, 정시모집에서는 92.4%를 수능위주 전형으로 선발하여 기존의 선발 기조를 유지하였다. 전체 모집인원은 학생부위주 전형이 소폭 증가(4,628명, 전년대비 약 0.7% 증가)하고, 수능 위주 전형은 소폭 감소(1,416명, 전년대비 약 0.6% 감소)하였다.

권역별, 전형별 모집인원 변동을 살펴보면, 수도권 소재 대학의 경우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전형 모집인원은 1,391명 증가(교과 333명 감소, 종합 1,724명 증가)하였고, 정시모집 수능위주 전형 모집인원은 961명 감소하였다. 비수도권 소재 대학의 경우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전형 모집인원은 2,970명 증가(교과 1,921명, 종합 1,049명)하였고, 정시모집 수능위주 전형 모집인원은 455명 감소하였다.

③ 사회통합전형 등 의무선발에 따른 대학별 선발 현황

사회통합전형(기회균형, 지역균형) 등 의무선발에 따른 대학별 선발 현황은 다음과 같다. 기회균형선발 모집인원은 전체 37,752명으로 전년 대비 총 428명 증가하였으며,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선발 모집인원은 전체 15,263명으로 전년 대비 총 724명 증가하였다.

비수도권 의과대학의 경우 지역인재특별전형 모집인원은 전년 대비 103명 감소하였으나, 지역의사선발전형은 112명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도입 이후 두 전형 합산 모집인원이 총 504명 증가하며 지역 학생 선발 기조가 확대되었다. 다만, 현재 각 대학에서 의과대학 정원 변경에 따른 학칙 개정을 진행하고 있어, 향후 대학 별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사항이 확정될 시 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 선발인원은 일부 변경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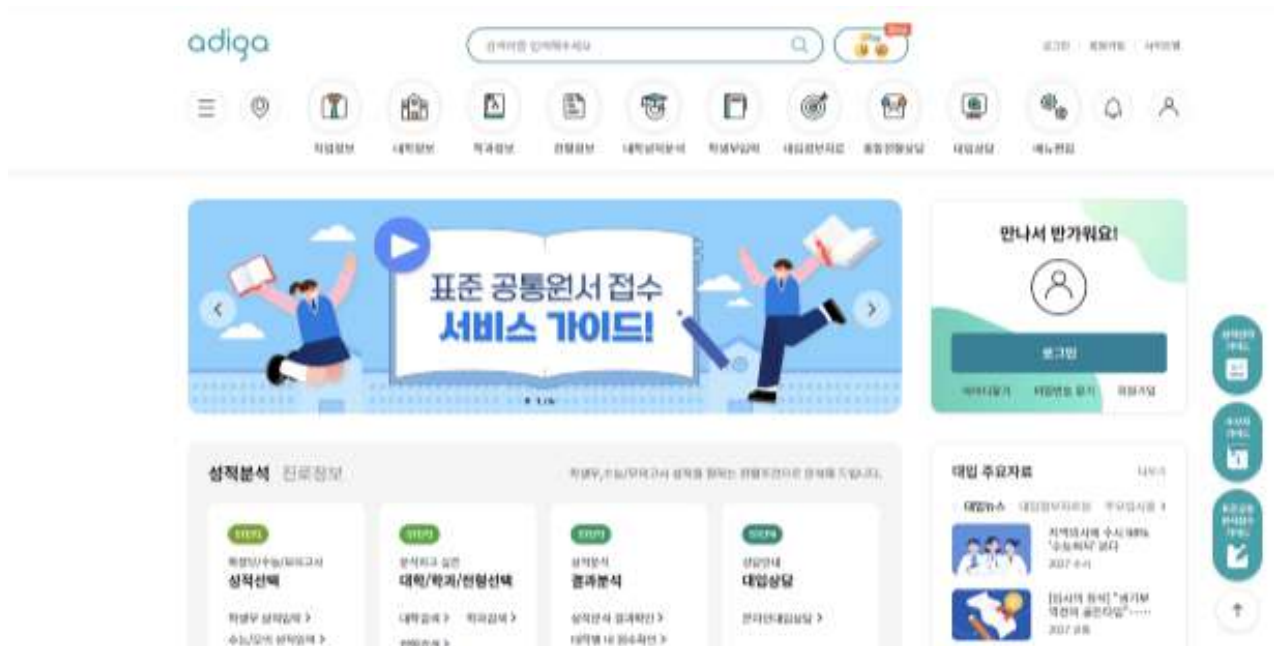
아울러 대교협은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홈페이지(www.adiga.kr)에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주요사항」 자료집을 게재하여 안내하고 있다.

대입상담교사가 쉽게 알려주는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사용법

서울 자운고등학교 교사 송경수

1. 시작하며: 정보의 홍수 속 '진짜' 찾기

대학 입시 준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수많은 입시 커뮤니티와 '카더라'통신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해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 운영하는 가장 공신력 있는 사이트, '대입정보포털 어디가(adiga.kr)'를 소개합니다. 복잡해 보이는 메뉴 뒤에 숨겨진 입시 성공의 열쇠를 지금부터 하나씩 찾아 인생 여행을 떠나보시죠!



2. 나를 발견하는 시간: 점수 너머의 나를 만나는 '진로(직업) 정보'

입시라는 긴 여행을 떠나기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 성적'이 아니라 '나는 어디로 가고 싶은가?'입니다.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미래를 찾을 수 있도록 첫 발걸음을 함께합니다.



직업정보 탐색

내가 좋아하는 일이 어떤 직업이 될 수 있을까?
세상 모든 직업 정보를 통해 나의 적성과 사회적 가치를 연결해 보세요!

학과정보 탐색

이름만 봐서는 모르는 학과의 진짜 모습! 무엇을 배우는지, 졸업 후 어디로 진출하는지 '어디가'에서 상세히 알려줍니다.



키워드(예: 에너지, 경제, 스포츠)만 입력해도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3. 여정의 시작: 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성적 분석'

단순히 등급만 확인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어디가'의 '성적분석' 기능을 활용하면 대학별로 서로 다른 반영 비율을 적용한 나의 '환산 점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시험 성적이 나올 때마다 결과를 입력해 나의 성적 추이를 관리해 보세요!



학생부성적분석

같은 성적이라도 어느 대학의 계산기를 두드리느냐에 따라 나의 등급은 달라집니다. 대학별로 제각각인 복잡한 산출 방식을 클릭 한 번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나에게 가장 유리한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을 찾아보세요!



- ① 대학별 반영 교과: 내가 잘하는 과목 위주로 반영하는 대학이 있는지 체크!
- ② 학년별 반영 비율: 학년이 올라갈수록 비중을 높게 두는 대학은 '상승 곡선'을 그린 학생에게 유리!
- ③ 정성평가를 반영하는 대학: 학생부의 내용적 요소도 함께 고려하는 대학인지 체크!

*로그인 필요

수능(모의고사)성적분석

수능 및 모의고사 성적을 입력하고, 전국 단위에서 내 위치를 확인한 뒤 나에게 가장 유리한 반영 조합을 가진 대학의 정보를 확인하세요!



- ① 표준점수 vs 백분위: 대학마다 활용 지표가 다르니 해당 대학에 적용되는 지표 체크!
- ② 영역별 가중치: 내가 잘 본 과목을 높게 평가해 주는 대학을 찾는 것이 전략의 핵심!
- ③ 성적 관리: 모의고사 성적을 입력하여 성적 추이를 한눈에 파악!
- ④ 관심 대학 등록: 해당 대학의 전년도 합격자 성적을 비교하여 합격 가능성 예측!

4. 앞서간 발자국: 대학 분석의 핵심 '전년도 입시결과'

"당신이 가고자 하는 그 길, 이미 누군가 걸어갔습니다." 낯선 여행지에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건 먼저 다녀온 사람들의 생생한 리뷰입니다. '전년도 입시결과' 메뉴는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작년에 합격한 선배들의 실제 성적과 통계라는 '확실한 리뷰'를 보여줍니다.



학생부교과전형

최종 등록자 교과 성적의 70% 컷을 내 점수와 비교했을 때 내가 더 높다면 합격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0% 컷보다 높다면 최소합도 노려볼 수 있는 성적! 다만,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여행은 시작될 수 없습니다.



- ① 학교별 전형방법(전형요소 및 반영비율)과 선발방법(일괄, 단계) 체크!
 - ② 교과성적의 자세한 반영 방법을 확인하고 과목별 석차등급 점수 확인!
 - ③ 학교별 '전형결과'를 통해 나의 환산점수가 어느 수준에 위치하는지 파악!
- * 교과전형에 정성평가가 반영되는 학교: 고려대, 건국대, 동국대, 경희대, 한양대 등

학생부종합전형

학종은 성적뿐만 아니라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닌 '우리'를 생각할 때 여행의 가치는 더 진해집니다. 나만의 북극성을 찾아가는 진로 여정, 그 발자취가 담긴 '진로활동'은 합격으로 가는 확실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 ① 전형방법(서류형, 면접형) 확인!
- ② 서류평가(학업, 진로, 공동체 역량)의 관점에서 나의 학생부 평가!
- ③ 최종등록자의 학생부 등급과 나의 성적을 비교!

수능위주전형

수능위주전형(정시모집)은 수능 점수를 대학별 계산법으로 변환하는 '치밀한 전략 여행'입니다. 표준점수와 백분위 중 무엇을 반영하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어디가' 성적 분석으로 산출된 나의 점수를 입시 결과와 직접 비교해 보세요!



- ① 대학별 '전형방법'과 '수능 성적 산출방법(표준점수 / 백분위)'을 체크
- ② 최종 '모집인원'과 '충원합격순위'를 통해 지원 가능성 예측
- ③ '대학별 환산 점수'와 '영역별 백분위'를 내 성적과 비교

5. 동행: 전문가의 입시 내비게이션 '온라인대입상담'

입시라는 낯선 길 위에서 누구나 한 번쯤 방향을 잃고 불안해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수많은 여행자를 목적지까지 안내해 본 전문가입니다. 경력 10년 이상의 전국 500명의 전문가가 당신의 경로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상담의 가치

온라인 상담은 단순히 점수만 맞춰보는 곳이 아닙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소속의 진학 전문가(상담 교사단)가 여러분의 성적과 상황을 고려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경로를 제안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성적과 고민을 꼼꼼하게 적는 건 기본!

상담 방법

대입상담 메뉴에서 궁금한 점을 구체적으로 질문하세요. 텍스트 상담뿐만 아니라 전화 상담을 통해 실시간으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불안한 '카더라'통신에 의지하지 말고, 정직하고 따뜻한 입시 가이드가 여러분의 질문을 기다립니다!



온라인상담 이용안내

*로그인 필요

- ① 상담 신청은 1일 3회 가능
- ② [마이페이지>성적관리]에 입력한 성적은 상담글에 자동 반영
*정확한 상담을 위해 성적 입력 필요
- ③ 부적절한 글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될 수 있음



전화상담 이용안내

- ① 상담번호☎ 1600 - 1615
- ② 상담시간 - 평일 09:00 ~ 22:00,
토요일 09:00 ~ 13:00
* 일요일 및 공휴일 미운영
- ③ 대입 전문가의 무료상담이나,
전화요금은 부과되는 점 참고

6. 나의 여행 스토리 점검: 전문가 피드백 '학생부종합전형상담'

학종은 단순한 수치 비교를 넘어, 학생부라는 기록 안에 담긴 '진정성'을 평가받는 전형입니다. 이 여정이 대학의 인재상과 잘 어우러지는지 전문가의 눈으로 점검받으세요!



학생부 피드백

여러 학생부를 접해 본 선생님들의 통찰력 있는 피드백은 여러분의 막연한 불안감을 확신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이정표 삼아 남은 여정의 방향을 다듬는다면 여러분의 지원전략에 희망의 한 스푼을 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상담 이용안내

- ① 정확한 상담을 위해 희망대학 및 학과, 전형은 반드시 입력
- ② 교과 외 영역도 검토가 필요하므로, 학교생활기록부를 반드시 등록(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처리)
- ③ 제출된 학생부의 경쟁력과 방향성에 대한 피드백만 제공(대학별 합격예측은 불가)

*로그인 필요

**학생 여러분들의
의미 있는 인생 여정을 응원합니다!**

엄마 마음으로 준비한 J형 선생님의 고3 여름방학

경기 양명고등학교 교사 김민지

“

여름방학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

”

고3 담임을 하면서, 또 지역사회에서 여러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학 상담을 하면서 여름방학이 다가올 때마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딱 맞는 전형은 무엇인가요?”

“방학 동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수시 6개 카드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정시는 완전히 버려도 될까요?”

“AI 시대에 취업이 잘되는 학과는 어디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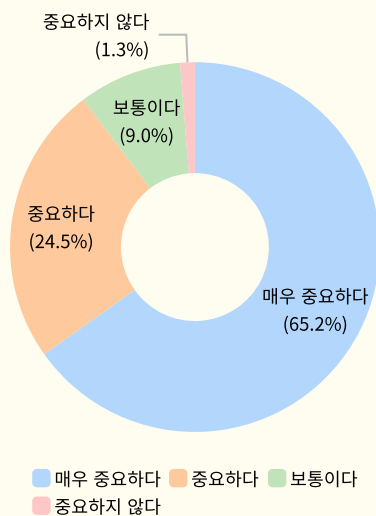
이 질문들 속에는 단순한 입시 정보에 대한 궁금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미래가 걱정되는 부모님의 마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불안한 학생의 마음,
혹시 지금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
효율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게 하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
덜 불안하고 덜 헤매며 이 시기를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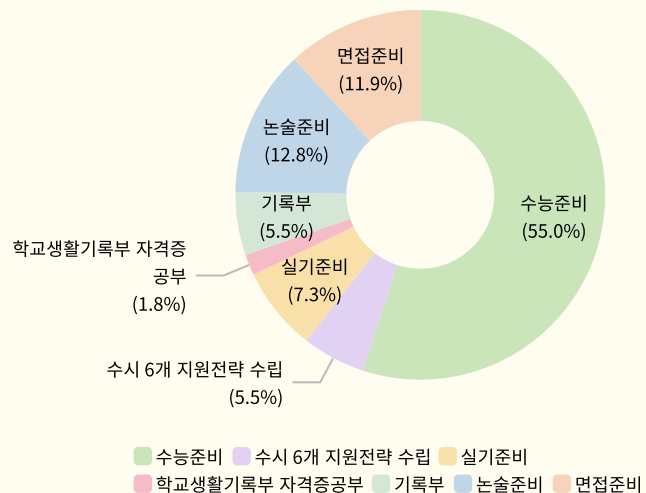
저 역시 고3 담임교사이자, 평범한 학생을 키우는 엄마이기에 이러한 마음에 더욱 공감이 됩니다.

매년 보이는 여름방학의 실수

매년 고3 학생들에게 반복적으로 보이는 실수를 알아보고, 현실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수도권에 위치한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 1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고3 여름방학 기간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고3 여름방학 기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리 학생들은 고3 여름방학 기간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고3 여름방학 동안 진학 준비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위의 그래프에서도 나타나듯이, 매년 학교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면접 준비]입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9월인데, 여름방학 기간 동안 [면접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좋은 계획인 것 같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 보면 면접 준비를 한 학교에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매년 다수 있습니다. 원서 접수 기간에 경쟁률, 9월 모의고사 결과 등 다양한 이유로 지원하고자 했던 학교가 계획과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면접 준비]만큼은 9월 원서 접수 이후로 미루어도 전혀 늦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9월 이후에 준비하더라도 면접 준비를 성실하게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생활기록부 마무리



성적이 마감되었기 때문에 고3 여름방학 기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가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마다 정기고사 일정과 탐구보고서 제출 기간이 모두 다릅니다. 마지막까지 교과 선생님의 마감 일정과 학교의 생활기록부 마감 일정을 참고해야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마무리를 잘 끝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의 탐구보고서 제출 일정, 발표 일정, 실험·실습 일정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또한 배우고 느낀 점이 잘 드러나도록 발표와 보고서를 완료해야 합니다.



고3 여름방학, 우리 반 아이들의 네 가지 모습



지난 몇 년간 고3 교실을 지켜보면 여름방학을 보내는 학생들의 모습은 참 다양합니다. 재미있게 표현하면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대박 기원파' ? 근거 없는 희망만 있고 계획은 없는 학생

내신은 4등급대인데 “선생님, 저 수능 대박 나면 인서울 가능하죠?”라고 묻습니다. 정시 대박, 논술 대박, 학종 대박을 기대합니다. 희망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공부 계획이나 지원 전략 없이 “어떻게든 잘 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전략이 아니라 막연한 기대에 가깝습니다. 내일부터, 다음 달부터가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2) '상담 쇼핑파' ? 결정을 미루는 아이

B 학생은 6월 한 달 동안 담임 상담 3회, 학원 상담 2회, 사설 컨설팅 2회, 친척 추천 상담 1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많이 받아도 계속 상담을 요청합니다. 정보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불안한 마음을 다잡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진학 상담과 진학 컨설팅은 답을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나의 성적을 마주하고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내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상담에서 언급된 대학들과 자신의 성적을 차분히 마주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3) '현실 회피파' ? 불안을 잠과 미디어로 덮는 아이

C 학생은 "선생님, 자려고 누우면 더 불안해요."라고 했습니다. 불안하니까 자고, 불안하니까 게임을 하고, 불안하니까 쇼츠와 릴스를 봅니다. 잠깐 피했을 뿐인데 하루가 지나가고, 하루가 지나가니 더 불안해집니다. 그렇게 방학은 어느새 사라집니다. 불안을 인지하고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실천한 아주 작은 학습 계획과 운동 계획을 하나씩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4) '지금 실천파' ? 묵묵히 오늘을 해내는 아이

D 학생은 거창한 계획표가 없습니다. 다만 매일 국어 비문학 1지문, 수학 10문제, 영어 단어 50개, 탐구 개념 1단원을 공부합니다. 교과서를 읽고 문제집을 풀니다. 결국 고3 여름방학을 가장 잘 버티는 학생은 특별한 비법을 가진 학생이 아닙니다. 오늘 할 일을 오늘 해내는 학생입니다. 상담 소핑에 시간을 많이 쓰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성적을 인정하고, 한 계단 오르기 위해 오늘 해야 할 작은 일부터 성실히 실천합니다. 그러한 작은 실천은 대입에서도, 그리고 인생에서도 언젠가는 목표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수시 6장은 '확정'이 아니라 '2배수 준비'가 먼저

”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여름방학에 “수시 6개 카드를 정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름방학 초반부터 6개 대학을 너무 빨리 확정해 버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입시는 매우 상대적입니다. 작년 E 학생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내신 1.8등급의 우수한 학생이었지만, 본인이 지원한 학과의 그해 경쟁률이 전년 대비 1.5배 상승하면서 1단계에서 탈락했습니다. 입시 상담을 할 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프로그램에서 최근 3년 동안 교과 전형 합격·불합격자 성적을 확인했을 때는 합격선 안에 드는 학생이었습니다.

반대로 F 학생은 내신 3등급 초반이었지만, 본인이 지원한 학과의 경쟁률이 급락하면서 합격했습니다. 문제는 실제 경쟁자가 누구인지 미리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생기부가 좋다”, “성적이 괜찮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과거 합격·불합격 사례, 내신 분포, 전형 특성, 모집 인원, 경쟁률의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저는 수시 6장을 바로 확정하기보다 최소 12개 정도의 후보군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9월 원서 접수 시기에 실제 경쟁률을 확인하면서 지원 전략을 조정해 보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담임 선생님과 상담 시간 준비

담임 선생님과 입시 상담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학생 스스로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자료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 지원 카드 6장, 교과 지원 카드 6장 정도를 준비한 후 담임 선생님과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경우 담임 선생님, 부모님과 함께 면접 가능성, 학교생활기록부의 정성평가 요소, 경쟁률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 지원 카드와 교과 지원 카드의 비율을 정리하고, 2배수의 합리적인 예비 지원 카드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상담 시간을 기초적인 입시 용어 설명이나 근거 없는 기대감에 대한 확인으로만 보내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전에 자료를 준비해 가면 상담 시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지컬 관리가 곧 멘탈 관리

고3 시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대입 때문에 고3 시기가 중요하다는 말은 아주 단편적인 일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3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부모님과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하고, 혼자서 실천해야 하는 다양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고3은 이렇게 혼자서 중요한 결정을 하고, 스스로 실천하며, 결과에 책임을 지는 첫 번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홀로서기와 책임에 대한 성공과 실패의 경험은 앞으로 100세 인생을 계획하고 실천하며 견디어 내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성공도 실패도 모두 소중한 경험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경험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멘탈, 즉 정신 관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멘탈 관리가 피지컬 관리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합니다. 잠을 못 자면 생각이 부정적으로 흐르고, 체력이 떨어지면 공부 계획도 지키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몸을 조금씩 움직이면 잠이 좋아지고, 식사가 안정되며, 불안도 조금씩 관리됩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운동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 2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고3 여름방학에는 공부 계획표 옆에 운동 계획표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운동은 입시를 방해하는 시간이 아니라, 입시를 끝까지 버티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수능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호흡입니다. 잠을 줄이고 공부 시간을 무리하게 늘리는 학생보다, 일정한 수면과 운동 루틴을 지키며 끝까지 버티는 학생이 더 안정적으로 갑니다. 부모님께도 부탁드립니다. 아이가 운동한다고 해서 "그 시간에 공부하지."라고만 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력은 고3에게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체력이 있어야 집중도 되고, 집중이 되어야 성적도 오릅니다.

“

고3 여름방학은 방향을 바로잡는 시간

”

고3 여름방학은 완벽한 역전을 약속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막연한 대박을 기대하기보다 가능한 선택지를 넓혀야 합니다. 상담만 계속 받기보다 나에게 맞는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회피하기보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해야 합니다. 공부만 붙잡기보다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합니다. 엄마이자 교사인 저는 우리 반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불안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야. 고3이라면 누구나 불안해. 하지만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지는 말자.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수시 카드는 2배수로 준비하고, 경쟁률을 보며 조정하자. 그리고 매일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자. 몸이 버텨야 마음도 버티고, 마음이 버텨야 공부도 끝까지 간다.”

합격생

김병건 | 건국대학교 지리학과 26학번

학생부종합(KU자기추천전형)

합격수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지리학과 26학번 김병건입니다.

지리학과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고등학교 진학 후 다양한 과목을 배우며, 지리 과목이 단순히 지명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땅의 이치를 탐구하는 깊이 있는 과목이라는 점에서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특히 기후나 지형 같은 자연지리적 토대 위에서 인간의 도시, 교통, 경제 활동 등 인문지리적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이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따라서 지리 과목의 특성을 바탕으로 지리학과에 진학해 세상을 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을 기르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KU자기추천(학생부종합)전형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교과 수업에서 생긴 사소한 의문을 놓치지 않고 심화 탐구 보고서나 발표 활동으로 확장하며, 지리학이 지닌 융복합적 가치를 생기부에 실천적으로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건국대 KU자기추천전형은 면접이 있는데, 건국대학교 지리학과에 진학하고 싶은 간절함을 표현하기 위해 꼼꼼하게 생기부를 분석하고 선생님들께 정중히 부탁해서 모의 면접을 해봤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은 학교 지리 동아리에서 진행한 답사 활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수업 시간에 배운 지리 지식을 실제로 그 현장에 가 두 발로 직접 걸으며 보고 느낀 답사 활동이 더해져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또한 사전 조사와 답사 후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적절한 자료 활용, 조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현장 외에서도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나아가 실제 면접에서 답사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을 때, 생생한 기억을 토대로 면접 질문에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어려웠거나 부족했다고 느낀 점은 무엇이었나요?



준비 과정에서 부족했던 것은 경쟁자 대비 낮은 성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학년 때, 공통 과목 성적이 낮게 나온 후 인서울에 대한 생각은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1학년 때부터 꿈꿔온 지리학과 진학의 목표는 변함이 없었기에 선택 과목 선정을 신중하게 해, 지리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주요 과목의 낮은 성적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과목에서의 탐구 활동과 비교과 활동을 통해 지리학과에 진학하기 위한 제 열정을 보여줬습니다.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합격 비결은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저만의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리학이라는 학문의 특성상 범위가 매우 넓기에 저는 이를 이용해 연계성 있는 탐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지리 시간에 우리나라 카르스트 지형에 대한 형성 원리,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사례 등을 탐구했다면, 여행지리 과목에서 우리나라 카르스트 지형과 연계한 친환경 여행 계획 세우기 활동으로 확장했습니다. 이처럼 교과목 간의 수평적 연계와 학년 간의 수직적 심화 탐구를 통해 탐구 활동의 질을 높이고, 지리학에 대한 저만의 뚜렷한 열정을 입학 사정관님들께 확실히 보여드린 것이 주효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을 위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1학년 때는 낮은 성적으로 인해 인서울은 꿈도 꾸지 못하며 막막한 입시 생활을 보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적표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에 몰입할 수 있는 사람 인지 증명하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지리라는 과목에 매료된 후, 교과서 안과 밖 모두를 탐구하고 학교생활의 모든 순간에 성실히 임했던 과정들이 결국 합격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수험생들에게 지금 당장 성적이 낮다고 해서 스스로 한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대신 수험생 각자만의 꿈을 믿고, 관심 있는 분야를 깊이 있게 파고드는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보라 말하고 싶어요. 묵묵히 쌓아온 성실한 시간과 탐구의 기록들은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응원합니다~!

지도교사

이호 | 충북 세광고등학교 교사

김병건 학생이 지리학과(학생부종합[KU자기추천])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병건 학생은 지리학과에서 요구하는 공간적 사고력과 탐구 역량을 충실히 갖춘 학생으로 판단합니다. 1학년 때부터 지리학에 대한 분명한 관심을 바탕으로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단순한 교과 학습을 넘어 탐구활동에서도 남다른 깊이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스스로 주제를 설정하고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자기주도성과 분석력이 돋보였습니다.

또한 교실 수업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 답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리적 현상을 실제 공간 속에서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이론과 실재를 연결하는 학습 태도를 형성하였으며, 이는 지리학 전공에 적합한 학업 특징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김병건 학생은 지리학에 대한 진정성 있는 관심과 지속적인 탐구 태도를 바탕으로 학업을 수행해 온 학생으로, 학생부종합전형(KU자기추천)에 적합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도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지도방향이나 전략은 무엇이었나요?

지도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방향은 학생의 관심을 단순한 흥미 수준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지리적 사고를 갖춘 탐구 역량으로 구조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과 학습에서는 개념 이해에 그치지 않고 지도, 통계, 지역 사례 등을 활용하여 현상을 해석하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지도하였으며, 탐구활동에서는 학생이 스스로 질문을 설정하고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반복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특히 이론 중심 학습과 더불어 현장 답사 활동을 병행하도록 지도하여, 교실에서 학습한 내용을 실제 공간에 적용해 보고 이를 다시 분석하는 순환적 학습 구조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이 지리적 현상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학습 경험을 일관된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유지하였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할 때 특히 신경 쓴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할 때는 학생의 활동을 단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지리학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심화·확장되어 왔는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드러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1학년부터 이어진 관심과 노력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탐구의 깊이와 방식에서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각 활동이 개별적으로 분절되지 않도록, 교과 학습·탐구활동·답사 경험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학생의 전공 적합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서술하는 데 신경 썼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의 학업 태도와 탐구 과정, 그리고 지리학적 사고의 형성이 일관되게 나타나도록 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지도교사의 시선에서 합격의 결정적 요인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도교사의 시선에서 볼 때 합격의 결정적 요인은 지리학에 대한 일관된 관심과 이를 실제 탐구로 확장해 온 지속성이었다고 판단합니다. 1학년 때부터 시작된 관심이 단순한 흥미에 그치지 않고, 교과 학습에서 탐구활동 그리고 현장 답사로 이어지며 점차 심화되는 과정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주어진 활동을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질문을 설정하고 자료를 분석하여 자신의 관점으로 정리하는 태도가 꾸준히 유지되었다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자기주도성과 탐구의 축적이 학생부 전반에 일관된 흐름으로 나타나면서, 전공 적합성과 학업 역량이 설득력 있게 전달된 것이 합격의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보완이 필요했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보완이 필요했던 점은 관심 있는 지리 분야에 깊이 몰입하는 과정에서, 탐구 주제가 다소 특정 영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나의 주제를 심층적으로 파고드는 강점이 있는 반면, 초기에는 다양한 관점이나 인접 분야와의 연결까지 확장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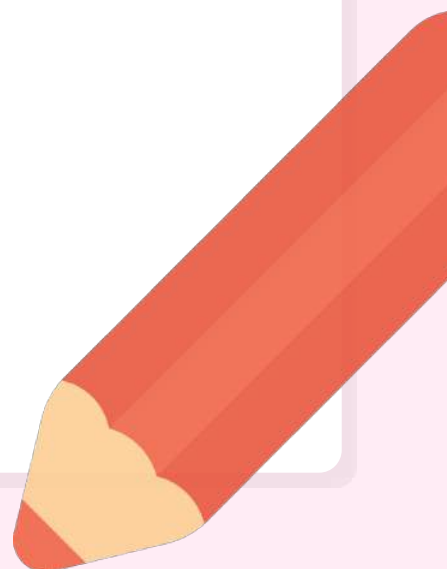
다만 이러한 부분은 탐구의 밀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나타난 특성이며, 이후에는 경제 또는 환경 등 다양한 관점과의 연계를 시도하며 시야를 넓혀가는 모습으로 점차 보완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지리학과(학생부종합[KU자기추천])을 준비하는 학생을 지도할 때 신경 써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무엇보다 지리적 현상을 해석하는 사고 과정이 학생부 전반에 일관되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에 신경 써야 합니다. 단순한 활동의 양이나 스펙을 쌓기보다는, 교과 학습을 기반으로 탐구 주제를 설정하고 자료를 분석하여 자신의 관점으로 확장하는 경험이 축적되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교실 수업과 탐구활동, 그리고 현장 경험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설계하여, 학생이 실제 공간 속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학문적으로 해석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했는가'보다 '어떻게 사고하고 성장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정제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합격으로 이어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입학사정관

이정림 | 건국대학교 입학사정관



Q 건국대학교 지리학과 학생부종합 KU자기추천전형에서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건국대 학생부종합(KU자기추천)의 인재상은 3년간 고교 생활을 주도적으로 성실하게 보낸 학생으로 '교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해당 전공에 관심과 소질이 있어 스스로를 추천할 수 있는 학생'입니다. 평가요소는 학업역량(300점), 진로역량(400점), 공동체역량(300점)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건국대 지리학과는 인문지리학, 자연지리학, 지역지리학으로 구성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재상으로 지리과목을 비롯한 사회교과 또는 과학교과의 기초수학능력을 가진 학생, 지리학 관련 관심과 탐구 경험을 가진 학생, 자신의 창의성을 전체로 융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Q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해당 연도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건국대 학생부종합(KU자기추천)은 1단계 서류평가 100%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70% + 면접 30% 합산하여 최종 선발합니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전형은 전형 방법이나 지원자격에서 거의 변화가 없는 전형입니다. 그러나 2025학년도부터 학과(부) 모집과 전공 자율 선택제 모집단위인 KU자유전공학부의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의 차이가 있습니다. 학과(부) 모집은 학업역량, 진로역량, 공동체역량을 평가하며, KU자유전공학부의 경우 학업역량, 성장역량, 공동체역량으로 평가합니다. KU자유전공학부로 입학하여 2학년 때 본인이 원하는 학과를 선택할 수 있기에 학과(부)로 지원하거나, KU자유전공학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 전형에서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2026학년도 학생부종합(KU자기추천)은 870명 선발하는데 18,497명이 지원하여 경쟁률이 21.26:1이었으며, 지리학과는 15명 선발하는데 194명 지원하여 12.93:1의 경쟁률로 평균보다는 낮았습니다.

Q 해당 연도 합격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었나요?

지리학과는 사람과 공간에 대한 호기심을 기반으로 세계시민으로서 사회문제 해결력을 가진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재상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에 관한 탐색 노력과 준비 정도로 진로 역량을 평가하고, 인문·사회·과학 분야를 공부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으로 학업역량을 평가하며, 전공 관련 답사 활동이나 사회문제 해결에 협업이 중요하므로 공동체역량을 평가합니다.

지리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한국지리, 세계지리 등 지리 관련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국대는 모집단위별로 관련 과목을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문계열의 경우 국어·영어·사회 교과에서 일반선택과목을 먼저 이수하고, 진로와 적성에 맞게 진로선택과목을 이수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과목 이수 이력과 함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통해 수업 내용, 수업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에 반영합니다.

Q 서류 평가시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나요?

김병건 지원자는 학교생활을 충실하게 한 학생입니다. 대부분의 과목 세특에서 적극적으로 교사에게 질문하며 상호작용하고, 항상 성실한 태도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라고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기술되어 있습니다. 사회 교과에서도 지리·역사 관련 과목을 이수하며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 중 관심 있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탐구하였습니다. 관련 과목 학업성취도는 높으나 다른 과목의 성취가 낮은 점은 다소 아쉬운 점이지만 세특을 통해 지원자의 수업태도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동아리 활동과 진로활동을 통해 추가적으로 확장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래 상담 도우미, 반장 등의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타났으며, 많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인정하는 배려의 모습도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건국대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에서는 학생부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요소별로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수업 내용 및 태도, 활동의 과정 및 노력, 경험 이후의 변화와 성장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을 위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건국대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3년간 고교 생활을 성실하게 한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서류평가에서는 학생부 모든 항목이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교과학습발달상황이 중요합니다. 교과학습발달상황은 고교 생활의 전반적인 내용이 담긴 항목이면서 대학 수학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면접평가는 학생부를 기반으로 진행되므로 자신의 학생부를 꼼꼼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내용을 중심으로 자신이 그 활동에 참여한 계기-과정-결과를 정리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국대 지원을 염두에 둔 수험생이라면 대학에서 제공하는 전형 관련 자료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집요강을 비롯한 전형자료와 입학설명회, 온라인 콘텐츠(입시 KU:티비 등),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입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생

박예원 |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부 26학번 학생부종합(일반전형)

합격수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부 26학번 박예원입니다. 사회복지란 단순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을 넘어, 다양한 사회문제를 이해하고 모든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학문입니다. 저는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회복지의 역할에 매력을 느껴 이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학부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 가장 많이 했던 고민은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였습니다. 여러 진로를 고민하던 중,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가장 큰 보람과 뿌듯함을 느꼈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연스럽게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사회복지를 진로로 정한 뒤에는 관련 주제를 꾸준히 탐구하며 관심을 이어왔습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 것을 넘어 사회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목표가 생기면서 사회복지학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부종합(일반전형)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저는 특별한 활동을 만들기보다는 학교생활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야간자율학습과 수업에 꾸준히 참여했고, 특정 과목만 선택적으로 공부하기보다 모든 수업을 성실하게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와 연결할 수 있는 사회문제 탐구나 토론 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하며 관심 분야를 학교생활기록부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꾸준함과 성실함을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준비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동아리에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주제로 토론과 캠페인을 진행했던 경험입니다. 여러 주제를 조사하고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사회문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힘을 기를 수 있었고, 단순히 문제를 비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해결 방안을 고민해보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관련 사례와 해외 정책 등을 조사하며 사회적 약자와 인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동아리 활동에서는 캠페인 부스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며 학생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사회복지가 사람들의 삶과 사회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어려웠거나 부족했다고 느낀 점은 무엇이었나요?



가장 힘들었던 점은 결과에 대한 불안감이었습니다. 스스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기대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면 '내가 부족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에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주변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흔들릴 때도 많았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완벽하려 하기보다 끝까지 꾸준히 해보자는 마음으로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조금씩 해나가고 하루하루 해야 할 일을 이어가려 했던 것이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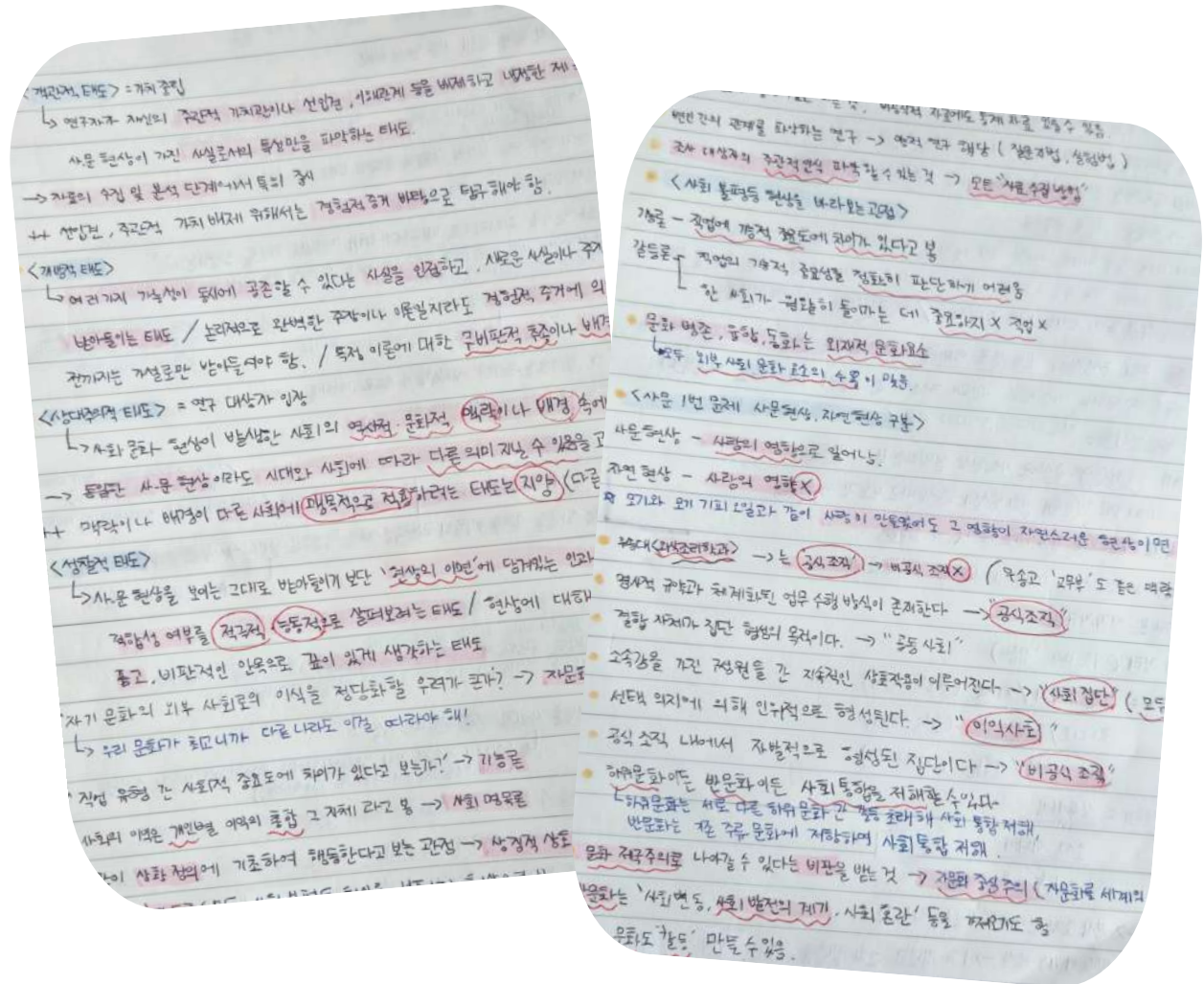


합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꾸준함과 성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사회복지라는 진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탐구했으며, 수업과 학교활동에도 책임감 있게 참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활동 개수를 늘리기보다 사회문제를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고민하는 과정을 꾸준히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진정성과 꾸준한 태도가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을 위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입시를 준비하다 보면 결과 때문에 불안하고 조급해지는 순간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눈앞의 결과에 흔들리기보다 자신만의 속도로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당장은 필요 없어 보이는 수업이나 활동도 결국에는 모두 도움이 됩니다. 저 역시 잘하지 못하는 과목이라도 끝까지 수업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던 경험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눈앞의 결과에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속도로 꾸준히!
 ”

지도교사

백지민 | 대전 우송고등학교 교사

박예원 학생이 사회복지학부(학생부종합 일반전형)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박예원 학생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깊은 공감을 바탕으로 현상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할 줄 아는 '실천적 지성'을 갖춘 인재였습니다. 3년 내내 사회과학 계열 교과에서 상위권 성취도를 유지하며 전공 이수에 필요한 기초 소양을 탄탄히 다졌으며, 특히 3개년 전 과정 개근 기록은 복지 전문가에게 필수적인 책임감과 성실함을 증명하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3학년 동아리 활동 등에서 수학적 데이터를 활용해 독거노인 추세를 분석하고 AI 기술을 복지 서비스에 접목하는 탐구 과정을 지켜보며, 복지를 시혜적 관점이 아닌 구조적·기술적 해결의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학문적 주체성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전공 적합성과 압도적인 성실함이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부의 인재상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독려했습니다.

지도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지도방향이나 전략은 무엇이었나요?

2학년 '생활과 윤리'부터 3학년 '도덕윤리 과제연구' 및 동아리 활동까지 2년간 연계 지도하며, 이론적 윤리 의식을 실천적인 문제 해결력으로 승화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교실에서 배운 가치를 동아리 내 심화 탐구로 확장하도록 이끌었으며, 독서와 실무 사례를 융합하여 청소년의 시각에서 실천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입시 전략 측면에서는 정량적 등급의 영향력보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질적 기록을 우선하는 평가 체제에 주목했습니다. 숫자 너머의 탐구 궤적이 기록을 통해 충분히 전달되도록 노력했으며, 안정적인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을 전제로 소신 지원을 독려했던 것이 합격에 긍정적인 밑거름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할 때 특히 신경 쓴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3학년 교과 수업과 동아리 지도를 병행하며, 창의적 체험활동과 교과 활동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입체적 연계성'을 가시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단순히 개별 활동을 나열하기보다 수업 중 발생한 지적 호기심이 동아리 활동으로 이어져 '유니버설 패션'이나 '디지털 격차'와 같은 구체적인 사회 담론 탐구로 심화되는 과정을 밀도 있게 담아냈습니다. 특히 학년 간, 영역 간, 과목 간 경계를 허물며 확장되는 학생의 성장 궤적을 강조하여, 정량적인 교과 성취도의 제약을 상쇄할 수 있는 지적 확장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러한 연계 기록이 학생의 전공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핵심 근거가 되도록 학교 활동 전반을 상호보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지도교사의 시선에서 합격의 결정적 요인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면접 없는 서류 100% 전형 특성상, 학생부 기록과 실제 삶의 궤적이 보여주는 '진실성의 일치'가 핵심이었다고 보았습니다. 3개년 전 과정 개근과 행특에 기록된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는 생기부 속 심화 탐구들이 입시용 결과물이 아닌, 학생의 치열한 고민 끝에 나온 산물임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기술의 윤리적 활용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끝까지 안정적으로 관리해낸 학업적 끈기가 대학 측에 강력한 신뢰를 주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보완이 필요했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사회 교과군을 제외한 기초 교과(수학, 영어 등)의 정량적 성취도가 학생의 노력에 비해 다소 낮게 형성되었던 점이 늘 안타까웠습니다. 3개년 전 과정 개근이 증명하듯 누구보다 성실하게 학업에 매진하는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았기에 교사로서 더욱 마음이 쓰이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원 학생은 정량적 수치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통해 자신의 질적 역량을 꾸준히 증명하며 스스로 돌파구를 찾아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역설적으로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는 학생의 '회복탄력성'을 생활기록부에 진솔하게 담아내는 계기가 되었으며, 학문적 끈기라는 더 큰 자산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학부(학생부종합 일반전형)를 준비하는 학생을 지도할 때 신경 써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봉사 시간을 채우기보다 일상의 질문을 사회 구조적 모순과 연결해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탐구 과정을 생기부에 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위권 대학 전형일수록 학년 간·교과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적 확장성을 입증하는 것이 합격의 핵심 전략입니다. 아울러 정량적 성적의 한계를 질적 기록으로 보완하되, 대학이 요구하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학습의 지속성을 독려하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입학사정관

김양희 | 경북대학교 입학사정관**Q**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부 학생부종합 일반학생전형에서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학생부종합 일반학생전형(의·치·의예과, 수·의예과 및 자율학부 제외)은 학업역량(30%), 진로역량(50%), 공동체역량(20%)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전형의 특징은 진로역량의 반영 비율이 높고, 학업역량에서 학업성취도(내신 성적 반영X)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교과 성적의 높고 낮음보다는 수업과 연계된 탐구활동에 얼마나 주도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하였는지 등 정성요소와 더불어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또한 진로역량 평가 비중(50%)이 높기때문에 지원 모집단위와 관련한 과목 선택의 적절성, 학습의 심화 과정, 탐구 주제의 발전 양상, 활동 간의 유기적 연계성 역시 주요 평가 요소입니다. 특히 단순한 활동의 나열보다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탐구를 심화·확장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기주도성과 진로에 대한 관심의 지속성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공동체역량 측면에서는 학교 규칙 준수, 협업 경험, 책임감 있는 역할 수행 등 공교육 안에서의 성실한 성장 과정 역시 함께 평가합니다.

Q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해당 연도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해당 연도에는 전체 수험생 수 증가에 따라 전반적인 경쟁률 상승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률 역시 전년도 대비 상승하면서 학생부교과전형과 논술전형의 합격선 또한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전형별로 살펴보면, 학생부교과 교과우수자전형은 경쟁률 10.6:1, 수능최저 충족률 46.9%로 실질경쟁률은 약 4:1 수준이었습니다. 학생부종합 일반학생전형은 평균 경쟁률 22.1:1, 수능최저 충족률 52.8%로 실질경쟁률은 약 11.5:1로 나타났습니다. 논술전형은 경쟁률 18.6:1, 수능최저 충족률 34.9%로 실질경쟁률은 약 6.5:1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수능최저 충족 여부가 실질 경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며, 학생부종합전형 역시 서류 준비와 더불어 수능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Q 서류 평가 시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나요?

경북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은 모집전형 및 학과(부)에 따라 평가기준별 평가 비율이 달라집니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의 특성상 교과 성적으로 학생을 판단하지 않으며, 학업 수행 과정 전반에서 드러나는 역량과 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교과 성적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모집단위와 관련된 탐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의미 있는 성장과 발전이 확인된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과정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우선 관심 있는 진로와 관련한 활동, 단순 참여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탐구 과정과 결과가 기록되어 있는지,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시행착오와 문제 해결 경험이 이후 학습의 확장으로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결과 중심의 성과보다 학업 전반에서 나타나는 주도성, 지속성, 그리고 구체적인 수행 과정이 핵심적인 평가 요소로 작용합니다.

Q 박예원 합격생의 사례를 바탕으로, 보완·강화하면 좋을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사회복지학은 사회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구조적으로 분석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학문입니다. 따라서 관련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사회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의 형성과 심화 과정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경험에 머무르기보다 경험을 바탕으로 관찰하고, 문제를 발견하며, 개선 방향을 고민하는 흐름이 학생부에 드러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문제 해결 과정에서 관련 법·제도·정책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실천과 정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현상을 제도적 맥락에서 해석하고 분석하는 경험이 진로역량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박예원 합격생의 경우 독서, 탐구, 발표, 확장의 흐름이 조금 더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면 훨씬 더 좋은 학교생활기록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경북대학교가 원하는 인재상에 비추어 봤을 때, 수험생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한 스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교생활의 기본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출결 관리, 수업 참여, 과제 수행, 교내 규칙 준수와 같은 일상적인 태도는 학생의 책임감과 자기관리 역량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특히 학교 공동체 안에서 정해진 규율을 존중하고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모습은 공교육 과정에 충실히 참여해 왔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는 결과 중심의 기록이 아니라 과정 중심의 성장 기록이라는 점에서, 화려한 동기나 단기적 성과보다 일상적인 학습과 관계 속에서 형성된 성실함과 배움의 축적이 더욱 중요합니다.

결국 학생부종합전형의 준비는 특별한 활동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에서 자신의 관심과 역량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을 위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일부 수험생들은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활동을 추가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부종합전형은 활동의 양보다 과정의 연속성과 성장의 맥락을 더욱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따라서 남은 기간에는 새로운 활동을 무리하게 시작하기보다, 1·2학년 동안 수행해 온 활동 가운데 자신의 진로와 연결되는 내용을 점검하고 이를 보완·심화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특히 부족함을 느꼈거나 기대한 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면, 이를 분석하고 발전시키는 과정 자체가 진로에 대한 진정성과 학업적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시 원서 접수 이후에도 대학별 전형 일정, 서류 제출, 면접 준비 등 남은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며 끝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동시에 정시 지원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입은 합격 발표 시점까지 이어지는 과정인 만큼, 마지막까지 자신의 학습 리듬을 유지하고 책임감 있게 준비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안내

대교협 대입상담센터 전화·온라인상담 안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센터의 주요업무는 무엇인가요?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대학 간 상호협력을 통한 대학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82년에 설립되어 전국 200여 개의 4년제 대학을 회원으로 하는 대학 간 자율협의체입니다.
- 대교협은 고등교육 연구 및 자료개발, 대입전형 관리 및 지원, 대학정보공시(대학알리미), 대학기관 평가인증 등 대학 상호협력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대교협 대학입학지원실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입학기획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수립, 대학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안내, 대학입학 관리 및 지원
 - 입학지원·공정성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운영,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 지원사업 운영
 - 대입상담센터: 대입상담교사단(상담지원, 자료개발, 프로그램 지원) 구성·운영, 대입상담 운영 및 정보 제공, 수시·정시대학입학정보박람회 운영, 통합 대입상담 시스템 구축·운영
- 대입상담센터에서는 대입상담포털 “어디가샘 (sam.adiga.kr)”을 기반으로 대입전형정보 안내(대입정보119, 수시·정시 지역별 전형 분석자료집, 대입정보매거진 등), 대입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 진로진학상담(전화상담, 온라인상담, 학생부종합전형상담, 화상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입상담교사단 및 현직 교사의 상담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교원연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입상담센터의 상담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대입상담센터의 상담은 주로 전화상담과 온라인상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은 대입상담 경험이 풍부한 500여 명의 교사가 진로, 진학, 학습법 등 대입 전반에 대한 상담에 상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전화상담: ☎1600-1615
 - 평일 09:00 ~ 22:00, 토요일 09:00 ~ 13:00
 - 무료상담이나, 내담자의 전화요금은 별도 부과
 - 온라인상담: 대입정보포털 어디가(www.adiga.kr)
 - 대입정보포털 어디가(www.adiga.kr) > 대입상담 > 온라인대입상담
- 신뢰도 높은 상담을 위하여 전화 및 온라인상담은 개인정보 보호를 준수하는 가운데 전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 중 오류사항이 발견되는 즉시, 전화상담은 피드백지원교사의 콜백(발신자 1600-1615)이 이루어지고, 온라인상담은 상담을 작성한 교사가 직접 상담내용을 수정하여 상담의 공신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입상담센터는 방문상담이 가능한가요?

- 대교협 대입상담센터에서는 방문상담(대면상담)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 대교협에서 진행하는 수시박람회(1:1 대입상담관)와 지역교육청 주관 박람회, 교육청 진로진학센터 등에서는 대면상담이 가능합니다.
- 지역별 방문상담, 설명회 등의 사항은 지역 교육청 진로진학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시·도 교육청 진로진학센터



지역	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서울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02-3111-362~3	jinhak.or.kr
부산	부산진로진학지원센터	051-797-6464~6	dream.pen.go.kr
대구	대구진로진학정보센터	053-231-0398	dge.go.kr/jinhak/main.do
인천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	032-420-8475	cyberjinro.ice.go.kr
전남광주통합 (전남)	진로진학지원포털(디딜돌)	1644-8113	jdream.jne.go.kr
전남광주통합 (광주)	광주진로진학지원센터	062-380-4836	jinhak.gen.go.kr
대전	대전진로융합교육원	042-480-4016	edurang.net/course/main.do
울산	울산진로진학지원센터	052-210-5477~9	use.go.kr/jinhak
세종	세종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	044-903-8741~4	jinro.sje.go.kr
경기	경기진학정보센터	031-299-1691	more.goe.go.kr/jinhak
강원	강원진학지원센터	033-258-5628, 5615	jinhak.gwe.go.kr
충북	충북교육청 중등교육과	043-290-2223	cbe.go.kr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융합교육원	1588-0795	jinhak.cne.go.kr
전북	전북진로진학센터	063-239-3341, 3343	jbe.go.kr/jinro
경북	경북진학지원센터	054-840-2255	gbe.kr/jinhak
경남	경남대입정보센터(모든)	055-210-5111, 055-753-5122, 055-328-5182	jinhak.gne.go.kr
제주	제주진로진학지원센터	064-710-0287~9	jinhak.jje.go.kr